

올 트렌드 컬러, 황금빛 오렌지 ‘리빙 코랄’ ‘코랄 킬러’ 색조 화장품 불티

팬톤 2019 색 ‘코랄’ 선정
색조 제품 매출 45% ↑
립보다 블러셔 인기 높아

‘리빙 코랄(Living Coral)’ 색상의 제품이 때 이른 특수를 맞았다. 리빙 코랄은 통상 봄 시즌에 많이 찾는 색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올해는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색’에 이름을 올리면서 일찌감치 인기를 얻고 있다.

8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 브랜드들이 리빙 코랄 색상의 신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트렌드에 민감한 뷰티업계가 올해의 색인 리빙 코랄에 주목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빠르다. 올리브영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최근 3주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코랄, 오렌

지 계열의 주요 색조 화장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가량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약 20% 증가한 색조 카테고리 매출과 비교했을 때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리빙 코랄이 올해의 색에 선정된 것은 지난달 6일이다. 이 색상은 황금빛을 띠는 밝은 오렌지색으로 넘치는 활기와 포근한 온기를 전한다.

매년 올해의 색이 발표되지만, 올해는 특히 리빙 코랄 또는 유사한 색상을 활용한 제품들의 강세가 뚜렷하다. 최근 선정됐던

‘그리너리(2017)’, ‘올트라 바이올렛(2018)’ 등이 메이크업에 활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색상이었던 반면, 코랄, 오렌지 등 색상은 자연스럽게 생기를 더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립(LIP) 제품뿐만 아니라, 블러셔나 아이섀도우 등 다양한 제품에서 트렌드 컬러



를 확인할 수 있다. LG생활건강의 브랜드 VDL이 대표적이다. VDL은 최근 리빙 코랄을 주제로 한 ‘2019 VDL+팬톤 컬렉션’을 출시했다. 12가지 색이 담긴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리빙 코랄을 중심으로 다양한 톤을 아우르는 코랄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4종의 코랄 색상으로 구성된 립스틱, 치크 등이 함께 출시됐다.

제품군별 매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코랄 색상의 블러셔 매출은 같은 기간동안 약 5배 신장했고, 아이섀도우는 140%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코랄 컬러는 립이나 블러셔, 아이섀도우 등 어떠한 카테고리에서도 활용도가 높아, 팬톤이 선정한 컬러와 유사한 색조 화장품의 수요가 연초부터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메이크업은 강렬한 포인트보다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GC녹십자 中 제약사에 ‘헌터라제’ 기술 수출

GC녹십자는 중국 캔브리지(캔브리지)사와 헌터중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캔브리지는 중국 등 중화권 국가에서 헌터라제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GC녹십자가 받게 될 계약금과 마일스톤은 양사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다.

‘헌터라제’는 IDS(Iduronate-2-sulfatase) 효소 결핍으로 골격 이상,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인 헌터중후군 치료제로,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정제된 IDS 효소를 정맥 투여해 헌터중후군 증상을 개선한다. 지난 201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이후 전세계 10개국에 공급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까지 헌터중후군 치료제로 허가 받은 의약품이 없다. 하지만 중국의약품관리국(NMPA)이 최근 발표한 121개 희귀질환 관리 목록에 헌터중후군이 포함되는 등 희귀질환과 관련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캔브리지는 희귀질환 및 항암제 상업화에 주력하고 있는 제약사로, 중국 내 희귀질환 분야 선두 주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전세계 헌터중후군 환자들의 삶의 의미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캔브리지사와의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헌터라제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한미정밀화학 정영길 대표(앞줄 왼쪽 두번째)와 경영진들이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함께 촬영하고 있다.

“럭셔리 설 선물은 호텔에서 준비하세요”

특산물·와인 등 고품격 상품 엄선
10만 원 이하 가성비 제품도 인기
시그니처 식사+숙박권 패키지도



설 선물 세트. /하얏트 리젠시 제주

설 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호텔업계가 설 선물 세트 판매에 돌입했다. 국내 명품 특산물, 와인 등 고품격 상품부터 10만 원대 이하의 가성비 높은 선물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들이 준비됐다.

특급호텔들이 설 선물 세트를 위해 주목한 것은 바로 각 지역의 특산물이다. 엄선된 지역 특산물로 품격있는 선물을 구성했다.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지난 2012년부터 ‘로컬푸드 프로젝트’ 이어오고 있다. 특히, 단일 구성보다 혼합 구성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두 개 이상의 지역 특산물이 섞인 혼합 선물 세트를 주로 선보인다. 특선 한우와 독도새우 세트, 완도산 친환경 전복과 갈비찜 등이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은 평창올림픽 1주년을 기념해 평창군과 맞손을 잡았다. 대관령 청정지역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 세트와 평창산 머루로 빚은 전통 머루주와 전통 복분자세트, 평창 무공해 황태 세트, 평창 해발 고지에서 자란 산삼

으로 담긴 산삼주 세트를 추가 구성해 선보인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와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는 제주 특산품으로 설 선물 세트를 구성했다. 먼저, 하얏트 리젠시 제주는 제주 제철 과일, 수산물, 제주 흑돼지를 비롯해 제철 농산물과 전통차, 전통주 등 다양한 구성을 선보인다.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는 최상급 제주 한우, 흑돼지, 옥돔 은갈치 등을 설 선물 세트에 담았다.

호텔 레스토랑 셰프들의 정성과 노하우를 담아 완성한 선물세트도 주목할 만하다.

위커킬 호텔앤드리조트는 보양식 선물 세트를 출시,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한다. 중식당 금룡에서는 해삼, 전복, 자연송이

그리고 생선 부레를 뜻하는 사보(四寶)를 주재료로 12시간 이상 정성껏 고아 찌내는 사보탕을 내놓는다. 또, 올해는 숯불 갈비 전문점 명월관에서 프리미엄 갈비탕 선물 세트를 출시한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는 호텔 셰프가 직접 엄선한 최상의 마블링을 자랑하는 ‘한우세트’, 커피고유의 풍미를 자랑하는 ‘트리니다드(Trinidad)’ 커피세트, 미국 미식이 협회 3년 연속 최고의 흥차로 인정받은 ‘레볼루션(Revolution)’ 우드 티 세트,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3가지 타입의 ‘와인 세트’, 프리미엄 뷔페 ‘푸드익스체인지’ 식사권 등을 준비해 고객의 선택 폭을 늘렸다.

글래드 호텔에서는 글래드 여의도 그리츠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이자 인기 메뉴인 양갈비를 담은 ‘그리츠 시그니처 양갈비’와 함께, 글래드 베스르브 2종, 타올 세트 3종, 글래드 by 뷰디아니아 아메니티 세트 등이 포함된 ‘글래드 아이템’ 선물 세트, 숙박권, 오라퀀트리클럽 이용권 등을 설 선물 세트로 선보인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육류, 해산물, 와인, 중국차, 티세트 등 햄퍼 전문가가 엄선한 다양한 선물을 선보인다. 또 와인, 프리미엄 티 세트, 초콜릿 및 호텔 상품권 등 다양한 아이템을 엄선해 햄퍼 또는 박스에 선물 세트를 준비한다. /김민서 기자

한미정밀화학,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한미약품 계열사 한미정밀화학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됐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임금 수준 ▲일과 생활의 균형 ▲고용 안정 등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을 고용노동부가 각각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선정된 기업은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우대 등 청년 채용을 위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총 1127개로, 한미정밀화학은 고용노동부 심사 기준인 3개 부문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127개 기업 중 3

개 부문 모두를 석권한 기업은 300개 회사 뿐이다.

한미정밀화학은 유연한 근무 문화 구축을 위해 선택시간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한편, 전 임직원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감성 UP-DAY’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직원 본인과 자녀를 위해 학자금 지원을 하고, 언제든지 읽고 싶은 도서를 대여해 주는 북 카페 등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생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 및 일, 학습 병행제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코오롱그룹 코오롱호텔 총지배인 허진영 코오롱 씨클라우드 총지배인 김영태

코오롱그룹의 호텔·리조트가 허진영 코오롱호텔 총지배인과 김영태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총지배인을 새롭게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허진영 코오롱호텔 총지배인은 코오롱그룹 호텔·리조트 최초의 여성 총지배인으로 올해로 호텔업 경력 22년차 베테랑이다. 1993년 제주 파라다이스 호텔 식음료 판매 사원으로 호텔에 입문한 뒤 20여 년간 프론트 데스크, 예약실, 판촉팀, 객실팀, 식음팀 등 핵심 영업부서에서 다양한 경험과 호텔 운영 노하우를 쌓았다. 2006년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객실팀 부지배인으로 입사해 총괄 운영 팀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코오롱호텔 식음료 팀 지배인을 거쳐 올해 총지배인으로 선임됐다.

김영태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총지배인은 1992년 코오롱호텔 식음팀 입사



허진영 코오롱호텔 총지배인 김영태 코오롱 씨클라우드호텔 총지배인

를 시작으로 코오롱그룹의 호텔·리조트 사업에 28년째 몸담고 있다. 10여년의 세일즈 경력을 다진 전문가로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세일즈 총괄 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올해로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입사 10주년을 맞은 김 총지배인은 호텔 오픈 초기부터 합류해 사업 성장을 이끌 어온 성과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신임 총지배인으로 발탁됐다. /김민서 기자

이대서울병원 국내 최초 ‘스마트수술실’ 도입

오는 2월 문을 여는 이대서울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스마트수술실’을 도입한다. 의료진과 환자별 맞춤형 수술 환경을 제공해 수술 시간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8일 올림푸스한국과 ‘스마트 수술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대서울

병원이 국내 최초로 구축하는 스마트 수술실은 올림푸스의 수술실 통합 시스템인 ‘엔도알파’로 수술실에 들어가는 복강경 시스템, 소자기, 기복기 등 의료장비의 제어와 영상 송출 등 일련의 작업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한 자리에서 정확하고 쉽게 스마트 터치 패널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왼쪽)과 오카다 나오키 올림푸스한국 사장이 8일 서울 이대목동 병원에서 개최된 ‘스마트 수술실’ 구축을 위한 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